

OLED TV, 적자로 출시할 수는...

LG전자·삼성전자, 구체적 시기 베일에 ... 55인치 1000만원 안팎으로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TV의 출시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LG전자와 삼성전자가 TV를 공개했지만 아직까지는 하반기에 공개하겠다는 방침만 정해졌을 뿐 더 구체적인 시기는 베일에 가려 있는 상태이다.

LG전자와 삼성전자는 55인치 OLED TV를 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에 내놓기 위해 OLED 패널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가격을 소비자들이 만족할만한 수준까지 낮추지 못해 아직까지 LG전자와 삼성전자 모두 OLED TV 판매에 들어가기에는 다소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자시장 관계자는 “비싼 가격에 판매하면 소비자들의 외면이 뒤따를 것이고, 그렇다고 손해를 보고 판매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가격 책정이 가장 큰 고민사항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올림픽 특수가 실종되다시피 한 2012년 상반기에 글로벌 TV 시장의 침체가 고가 TV인 OLED TV의 출시시기를 늦출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전자 전문가들은 55인치 OLED TV가 출시되면 가격이 1000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7/02>